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2026년 물관리현장설명회 개최

- 농업인 및 물관리 관계자 거버넌스 강화 도모 -

김유인 | 기사입력 : 2026/04/28 [19:20:00]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전지영 지사장이 물관리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영암군민일보/김유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전지영)는 4월 28일 오전 11시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공연장에서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 영암군의회 박종대 의장, 정문갑 의원, 정선희 의원, 이만진 의원, 강찬원 의원, 영암지사 명예지사장 및 운영대의원, 수리시설감시원,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물관리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체험행사와 본행사로 나뉘어 구성되었으며, 현장체험행사에서는 영암지사가 관리하는 서호양수장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작동시연이 있었고, 이어서 영암지사 상황실에서 물관리상황실 운영 체험이 진행되어 현장 물관리 방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본행사는 공사 홍보 및 물절약 동영상 시청,물관리·농지은행 등 공사 주요업무 소개, 농업기반시설 관련 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기후이상 등 영농환경 변화로 인한 지역 농업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공유한 후 마무리되었다.

전지영 지사장은 “이번 설명회가 우리공사 물관리 업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각 이해관계자간 소통 및 화합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며, “올해 안정적인 농촌용수 공급 및 농업생산기발시설 내 무사고·무재해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